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 세션 19, 사무엘하 7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19회기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집을 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집을 짓기로 작정하셨음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나는 당신에게 왕조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장에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윗과 함께 시작하시고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언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나중에 시편과 사무엘하 23장에서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장의 주요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은 신뢰할 수 있으며 그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목적의 실현을 보장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주님께서서는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기 백향목 집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David는 여기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나에게서는 이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주님을 법궤와 동일시하십니다. 물론 법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의 한 구절에서 다윗이 항상 전쟁 중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였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막간이 있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블레셋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대해 읽은 전투 사이, 그 기간과 8장과 10장에서 읽을 내용 사이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동서남북의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막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 다윗에게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셨으므로 이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마치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이 많이 싸울 필요가 없는 적들로부터 약간의 휴식을 경험하는 이 전투 사이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서는 이것이 일시적임을 아시므로 그분은 다윗과 그의 왕조에게 적들로부터 더욱 영구적인 안식, 즉 안식의 기간을 주실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내가 이 진술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주에 적합한 집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뜻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축복해 오셨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실수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국가의 종교 중심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Nathan은 David가 제안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이 Nathan의 조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단은 선지자이지만 나는 이것을 예언적인 말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이 일이 있을 후에 바로 그것을 받게 될 거예요.

명확한 설명이 있을 것이지만 Nathan은 단지 David에게 "당신은 당신의 욕망과 의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므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밤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라.

그래서 이것은 좋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고귀한 지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여러 번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종으로 여기시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사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지어줄 사람이 당신이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나의 이해는 여기서의 의미는 다윗이 이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신과 같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천막을 거처로 삼아 이곳 저곳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더냐?

그러므로 다윗의 의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윗에게 나에게서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한다. 나는 누구에게서든지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달라는 것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텐트에서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주님이시며 그분의 하늘 보좌가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분에게는 백향목으로 만든 영구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8절,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나는 양 떼를 치는 목장에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다.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앞에서 네 모든 대적을 멸절시켰다.

이제 내가 네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크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택했다고 상기시키셨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10절, 그리고 그것은 단지 주님께서 다윗을 존경하거나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10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마련하고 그들을 심어 그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다시는 방해받지 않게 하겠다. 악한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다시는 그들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던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느니라 나는 또한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해줄 것이다.

글쎄,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을 행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약속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오래 전에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그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더 안전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 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압제를 당했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적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지 않을 진정한 안전과 번영과 평화가 있을 기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너희에게 선언하신다. 다윗은 주님을 위한 집, 문자 그대로의 집,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닌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궁을 갖고 있지만 왕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이라는 단어가 가족과 그 가족의 확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왕조입니다. 네 날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자손 곧 네 혈육을 이어 너를 이어나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는 다윗 다음으로 다음 왕이 될 것이지만, 이 후에도 계속되는 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솔로몬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으로 집을 지을 사람이다.

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위를 영원히 확립할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조와도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솔로몬과도 부자관계와 같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잘못하면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많은 사람이고 솔로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면 내가 사람이 휘두르는 채찍과 사람의 손으로 채찍질하여 그를 징벌하리라.

그러니 그 사람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실제로 충성,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낸 사울에게서 나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14절에 사용된 표현은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 아들과 부자 관계를 맺을 것이며 솔로몬은 결국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채찍으로 그를 벌해야 한다고 말할 때 사용된 언어는 잠언 3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그가 아버지로 사랑하는 자, 그가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계는 실제 부자 관계와 많이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아들이 불순종하면 때로 징계와

벌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좋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징계하고 벌하되 사람이 휘두르는 때 곧 사람의 때로 그것을 행하리라. 그리고 잠언에서는 채찍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잠언에는 이러한 형태의 징계를 언급하는 여러 구절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징계는 잠언 13장 24절에 따르면 부모의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여기서 하시려는 일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 꽤 강한 단어입니다.

심각한 위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가계, 그리고 그의 직계 후계자 솔로몬과 관계를 맺으시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울과 가졌던 관계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영구적인 왕조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내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버림과 같이 너를 버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 아들이 불순종하면 제가 처리해야 해요. 나는 그를 처벌하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네 집과 네 왕국은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은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 하신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제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대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약속에 압도당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과 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주권자이신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나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데이빗은 이 모든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에서 주님을 주인, 주권자로서 지칭하는 Adonai라는 단어를 여러 번, 일곱 번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NIV는 그것을 "주권자 주님"으로 번역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내 가족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로도 부족하신 것 같이 종의 집의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주님, 이 법령은 단순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데이빗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종, 주권자이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리고 내 생각엔 다윗이 여기서 단순히 "당신은 당신의 종을 아시고, 당신은 저를 아시고, 당신은 저를 아시고,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과 고대 근동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언약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인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3장, 2장의 다른 본문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느니라.

글쎄요, 주님께서서는 나라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알아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성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주권자여, 여기 있는 당신의

종을 아시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알다'라는 단어의 좀 더 전문적인 언약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과 뜻대로 이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너 같은 사람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었던 것처럼, 당신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비할 데 없음을 확증합니다.

신학자들은 신성한 속성과 전지, 편재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용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매우 흔한 개념입니다. 이 특정한 주제와 구약성경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전체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구약성서는 종종 이교도 신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인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숭배자가 있지만, 주님에 비하면 그들은 실제로 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독특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주님의 무상하심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숭배자들에 따르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당신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무상함을 확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백성과 같겠습니까? 이스라엘. 당신은 독특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경험에 일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속량하시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크고 두려운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나라와 그 신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려고 세상에 나오셨음으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께서 선택받은 왕으로서 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점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해했고, 주님의 말씀도 그것을 나타냅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다시 한 번, 그는 그에게 보여진 모든 호의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목전에 견고하게 되리이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사 내가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종은 용기를 내어 당신께 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언약은 신실하시도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언약은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번역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언약에 대한 실제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당신 종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에 압도되어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이 본질적으로 “예,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성취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것을 성취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데이비드 측에 약간의 의심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조건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 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이것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가 되어 당신이 이스라엘에 축복을 가져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고 싶지 않을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지 말해줄게, 제이콥.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여 도망하는 장면을 보면, 진실입니다.

그는 에서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데 익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네 집과 네게서 나올 민족에게 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삭에게까지 확장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약속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아직 완료된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로 내 약속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그와 제가 지금 바꿔 말하면, 천천히 가세요, 하느님. 내가 무엇을 말해주지. 이번 여행도 잘 챙겨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고 무사히 데려다주시면 그 사람이 신과 흥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당신이 저의 신이 되어 이보다 더 큰 일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제안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당신이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가 약속을 받아들이는 지점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는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 이 약속을 듣고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하외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일입니다. 그에게는 책임이 있으며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핵심 구절인 사무엘하 7장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구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상하게도 이 구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인 베릿이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본질적으로 언약적이라고 언급하는 다른 성구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묶어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이라고 불리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영원한 언약, 즉 야곱의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즉 베릿 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그리고 시편 89편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읽은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사무엘하 7장의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확실히 유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후반부에서 주님은 다윗에게 그의 끝없는 충성과 헤세드를 약속하시고, 다윗은 그의 언약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도 언약과 맹세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2:11과 예레미야 33:21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주님께서 후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여깁니다. 또한 주님을 아버지로, 다윗을 아들로 보는 이 사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시편 2편에는 다윗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은 문자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는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시편 89편 26절과 2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그의 장자로 부르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솔로몬이 될 다윗의 자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들이 될 것이고 여호와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9편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취소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낮과의 내 언약과 밤과의 내 언약을 파하여 낮과 밤이 다시 그 정한 때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 내 종 다윗과 세운 내 언약은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그의 왕위를 다스릴 후손이 없을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낮과 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순환을 여러분은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이 명령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다윗 왕조의 연속적인 계승을 약속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인 예레미야 33장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백성이 바빌론으로 유배되자 다윗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능하는 다윗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연속적인 계승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신 후에 내가 다윗의 가계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약속은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된 후 계속되는 통치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예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왕, 메시아로 나타내셨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처음 왔을 때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통치를 확립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왕좌에 앉히는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예레미야 33장의 약속이 백성이 돌아온 후의 기간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명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겉으로는 무조건적이며 확실히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성취될 약속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까다로운 다른 텍스트도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조건부로 봅니다.

7절에서 다윗은 그 약속을 묵상하면서 만일 솔로몬이 여호와와 그의 명령과 법도를 성실히 지키면 여호와 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은 실제로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섬기며 그를 찾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실제로 보지 못한 약속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무엘하 7장은 불순종을 예상했지만, 약속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몸에서 난 자 중에서 한 사람을 네 위에 앉히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명령을 지키면 그들의 후손도 네 왕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은 주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실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신실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긴장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실 뿐입니다. 완전히 일방적이고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열왕기에는 어떤 우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불충실한 반역자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그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89편에는 약속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말하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진리를 긴장 속에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관한 놀라운 진술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다고 한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말씀입니다. 거부하셨다는 것은 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종과 맺은 언약을 파하고 그의 면류관을 땅에 던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의 저자는 이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겉으로는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굴욕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는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떠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조를 버리시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으로 씨름하고, 해석자들은 이것으로 씨름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글썄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것보다 그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에게서 if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약속에 어떤 종류의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취소하시거나 없애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보좌를 견고히 하겠다고 다윗에게 이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유배 기간 이후에 다윗 왕조를 안전하게 만들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 왕이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었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의 약속을 포함한 모든 것이 끝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 약속이 다윗의 자손이 불순종할 경우 그 자손의 지속적인 통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편 89편에서 지적하듯이 그들은 보좌에서 끊어질 수 있었고 끊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사무엘하 7장, 8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합니다. 사무엘하 7, 8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 되기 전, 네가 목자였을 때에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아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를 징계해야 할 것이지만 그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언약과 약속의 실제, 실제적인 현실을 경험하려면 순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징계가 너무 가혹해져서 약속이 무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즉 돌이킬 수 없는 측면, 조건적인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같은 긴장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 주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가르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그분처럼 나를 섬길 때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의 가장 큰 긴장감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며 이상적인 이스라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에 따르면 그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다윗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대문자 M, 대문자 M.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합당하신 분임을 입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취소될 수 없으며, 새 이스라엘이시며 이상적인 다윗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하는 구절에도 암시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 중 일부는 실제로 열왕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후 다윗이 잘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잘한다. 우리는 그가 왕이 통치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구약성경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신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특히 사울과 요나단에게 한 약속에 신실함을 증명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19회기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집을 짓기로 결정하셨습니다.